**Deutsche Bank – Capital Market and Treasury Solution (Final Interview)**

오늘 도이치뱅크 capital mkt & treasury solution부서 final 면접을 보고 온 김세호입니다. 이 부서는 기본적으로 홍콩/싱가폴 오피스에서는 debt이던 equity던 모든 financial suite를 써서 financing을 도와주는 부서이고, 서울오피스 같은 경우는 은행/증권의 분리로 인하여, 따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행시장쪽에 관여하는 부서 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이 final인지는 모르고, 지난주에 싸이코메트릭 test를 마치고 면접보러 오라고 하길래, KTX 타고 서울 올라왔는데, interviewer께서 final까지 6명 올라왔고, 2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셔서, 그 때야 이게 final interview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

1. **Head of Capital Markets & Treasury Solutions(손창민 본부장님)\_30분**

먼저 CMTS부서 헤드분과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본부장님 오피스로 불러주셔서, 개인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. 이 분의 background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West Point(미국 육군사관학교)를 졸업하시고, west point 선배가 끌어주셔서 뱅킹쪽으로 커리어를 시작하셔서, 지금까지 꾸준하게 도이치에 계신 분 인 것 같았습니다. 인터뷰 분위기자체는 굉장히 나이스했고,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경청해주셨던 좋은 분이셨습니다.

제가 받았던 질문은,

*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보고, 왜 CMTS에 지원하게 되었나?
* 너는 자기소개하면서, 기업이라는 Entity를 통해서 사회로 give back하고 싶다고 했는데, 니가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되었냐?
* 군대에서 command post secretary라는 직책에 있었는데, 군 생활동안 니가 남들과는 다르게 배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? 또한 비서로서 모시는 분을 respect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?
* 군대에서 speech competition 했다고 했는데, 그게 어떤 주제로 진행한 것이며, 누구한테 발표했는가?
* 운동 좋아하냐? 농구 좋아한다고 썼는데, 키가 작아보이는데 주로 맡는 포지션과 역할은 무엇이냐?
* 검도도 했다고 썼는데, 검도를 왜 열심히 했던 것 같느냐?
*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냐?

제가 물어봤던 질문은,

* 본부장님께서는 왜 CMTS부서에 계시는지?
* 본인께서는 사람과 소통하고, Client랑 만나서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인생에서 즐거운 부분이라고 해주셨습니다. 월급 주니까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, 농담이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셨고, 사람에 대해서 늘 고민 많이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
* IB업계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
* 사람에 대해 고민 많이 함과 동시에, 사람에 대해 경계할 줄 아는 습관을 들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신뢰를 쉽게 주지는 말되,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.
* 오늘 인터뷰에 대해 feedback 부탁드릴 수 있는지
* 이건 제 자랑같아서 조금 부끄러운데, 여러분들이 면접볼 때 어떤게 buy가 되는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. 저는 2가지를 잘했다고 feedback해주셨는데, 첫 번째는 finance업계에 왜 들어오고 싶고, 이 안에서 니가 어떤 role을 하고 싶은지 logically 대답을 잘 한 것 같다(저 인터뷰 보기전에는 이런 대답을 한 지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. industry자체와 나의 fit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). 두 번째는, 말을 굉장히 조곤조곤 잘한다. 스피치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는 feedback을 받았습니다.

1. **Capital Markets & Treasury Solutions Analyst(김경민 과장님)\_10분**

이 분과는 면접을 그리 오래 보지 못해,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.

* 자기소개 & why cmts?
* 나중에 career goal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?

이 2가지에 대해 질문 받았습니다.

제가 물어봤던 질문은,

* 과장님께서는 왜 CMTS부서에 계시는지?
* 이 분께서는 2학년 때 도이치 홍콩 DCM Summer intern, 3학년 때 도이치 싱가폴 equity research summer intern을 경험하시고 cmts로 graduate하고 오신 케이스입니다. 사실 딱히 이 업에 대해 매료되어 일을 하시는 분 같지는 않았고, 개인적으로는 부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

인터뷰를 다 마치고 느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, 생각보다 fit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는 오늘 technical한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, 모두 한국어로 면접을 보았습니다. 하지만 제가 면접보기 이전에는 fit에 대해 고민해본 흔적이 있는 친구들이 없었다고 하신것으로 보아, technical 질문에 대해 준비는 당연한 것이고, fit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.

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resume에 interest에 쓴 농구나 검도 같은 것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, 이게 당락을 결정할 주요 factor는 아니지만, interview의 호감을 사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면접을 해나아가는데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한 레주메상에서 자기가 강조하고 풀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, 중간에 말을 끊으시더라도 다른 이야기에 잘 녹여내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고, 그럼 창업에도 관심이 많은지 여쭤보셨는데, 창업은 관심없지만 business plan competition 통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했더니 좋아하셨습니다.

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본인의 fit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, 가닥이 조금 잡혀나가거든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. 늘 많이 도와주신 KFAC 선배님들, 같이 활동한 KFAC Acting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KFAC이 좋은 금융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